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5월 22일
제1897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례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 14,23-26)



〈구세주 그리스도〉, 모자이크, 성 소피아 성당, 터키

부활 제6주일 (다해)

- 제 1 독서** 사도 15,1-2.22-29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기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화답송** 시편 67(66)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제 2 독서** 묵시 21,10-14.22-23 <또는 묵시 22,12-14.16-17.20>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23-29 <또는 요한 17,20-26>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²³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²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²⁵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²⁶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²⁷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²⁸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²⁹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 요한 14,27 -

a peace which the world cannot give, this is my gift to you.

- John 14,27 -

바오로 말 콘텐츠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산다면,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상의 존재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께서 이 지상에 현존하시는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2코린 6,16).

그런데 오늘 제2독서인 요한 묵시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어린양께서 친히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복음과 연결시켜 본다면, 참된 성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온 존재를 또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무한한 영광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되는 유일한 전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17).

그러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곧 하느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문수 막시미노 신부>

교황, 복자 10위의 시성식과 시성 미사 거행 “성덕은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15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전 앞 광장에서 복자 10위의 시성식과 시성 미사를 거행했다. 이번에 성인품에 오르는 10위는 △티투스 브란즈마 신부 △ ‘테바사하얌’ 으로 알려져 있는 평신도 라자로 △세자르 드 뷔 신부 △루이지 마리아 팔라출로 신부 △주스티노 마리아 루솔릴로 신부 △샤를 드 푸코 신부 △마리 리비에 수녀 △예수의 마리아 프란체스카(세속명 안나 마리아 루바토) 수녀 △예수의 마리아(세속명 카롤리나 산토카발레) 수녀 △마리아 도메니카 만토바니 수녀 등이다. 여러 나라와 대륙에서 5만여 명의 신자들이 새 성인들을 축하하기 위해 로마에 모였다.

교황은 강론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떠올렸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한 궁극적인 기준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강조한 교황은 이 계명의 본질적인 요소 두 가지를 설명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 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사랑 -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입니다.”

성덕 : 자신의 소명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

“성덕은 몇몇 영웅주의 행동이 아니라 수많은 일상의 사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헌 생활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봉헌한 대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혼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인입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어머니나 아버지입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권위자입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덕의 길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항상 다른 이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덕의 길은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꿈을 기쁨으로 실현해 나갑시다.”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



(바오로딸 콘텐츠)

1 은퇴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교구 은퇴 사제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미사 안에서 봉헌하는 성모의 밤

- 일시 : 5월 28일(토) 오후 7:30
- 장소 : 야외 성모상 앞
- 성모님께 꽃과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봉헌할 꽃은 로고스 청년회에서 당일 판매합니다.

3 춘계 대청소

- 일시 : 5월 22일(일) 10시 미사 후 구역부 주관 춘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성당 주변을 청소할 예정이니 모든 구역부 임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루카회 월례회의(6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40 (부역 뒤 테라스)

5 요한회 월례회의(5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30 (B-4)

6 K o C 월례회의(새 임원 선출)

- 일시 : 5월 22일(일) 오전 11:30 (A-1)
- 문의 : 한광모(마태오) (703) 899-8551

7 바오로회 정기모임(30대 본당 남녀 교우)

- 일시 : 5월 22일(일) 오후 2시 미사 후 (친교실)

8 꾸르실료 제349차 울뜨레아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7:30 미사 후 (A-1,2,3)

9 베드로회 첫 형제모임(40대 본당 남자 교우)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8시 (친교실)

10 혼인 갱신식

- 일시 : 6월 12일(일) 10시 미사 중
- 대상 : 25, 30, 40, 50, 60년
- 접수 :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신청 마감 : 5월 29일(일)까지
- 문의 : 김영술(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35

11 2022 CYO WorkCamp Contractor 봉사자 모집

- 봉사 기간 : 6월 19일(일) - 6월 24일(금)
- 알링턴 교구 WorkCamp에 함께 봉사할 컨트랙터를 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244-0333 사무실 (703) 968-3010

12 성령 기도회 모임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미사 후 (도서실)



(바오로말 콘멘츠)

가정을 위한 기도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 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 ♥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칸 등을 버리지 마세요.
- ♥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5월 15일(부활 제5주일)

주일 헌금	\$ 6,668.00
교무금	\$ 7,190.00
교무금(신용카드)	\$ 2,040.00
2차 헌금	\$ 2,749.00
감사 헌금	\$ 650.00
온라인 봉헌	\$ 2,640.00
합계	\$ 21,93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5월 26일(목) 오후 5:00-6:00
5월 27일(금) 저녁 8:00-9:00
6월 5일(일) 오전 6:00-7:00

1. 성정바로 성당 주일 미사 강론
2. 황창연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
- 코로나 19와 인류의 위기

혼인공시

- 이승호 자(子) : 이태현(스테파노)
- 남정숙 녀(女) : 주희량(지아나)
- 일시 : 2022년 5월 2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정 바로 성당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1974 - 2024

Year One(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수
	• 10:00 AM(교중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2:00 PM(학생미사)	목, 토
	• 5:00 PM(청년미사)	
월, 목, 토	• 7:30 PM	화, 금
• 6:00 AM	• 7:30 PM	• 11:00 AM